

역대기는 왜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역대기의 저자와 자료들

역대기는 그 저자가 한명인지, 아니면 여러 층을 가진 형태로 발전되어 왔는지, 또는 학파에 의해서 보존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들이 진행되어 왔다.¹ 설명과 주장들의 다양함 가운데에서도 공통의 분모는 역대기가 역대기 사가(들)에 의한 창조적인 문학이 아니라, 원자료 **Original source**로부터 출발하여서 보충되고, 첨가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대기 사가의 독특한 신학적인 반성이 녹아들어와 있다.²

역대기가 원자료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원자료는 무엇일까? 역대기는 광범위하게 이미 기록되어진 성서의 내용들을 인용한다. 물론 그 안에는 사사기와 같이 전혀 인용하지 않은 성경도 있으나, 역대기 사가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정경의 대부분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Japhet은 다음과 같이 역대기의 원자료들을 설명한다: (1) 역대기에는 오경의 자료들을 받아들였다. (2) 여호수아서, (3) 사무엘, (4) 열왕기, (5) 에스라-느헤미야. 이런 정경 자료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당대에 권위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정경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책들 역시 역대기 사가의 자료들이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 책들은 하나의 책들을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 (1)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대하 27:7),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대하 16:11; 25:26), (2) 이스라엘 열왕기(대하 20:34), (3)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대하 33:18), 열왕기 주석(대하 24:27).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 예언의 글들도 인용하였다: 사무엘의 글, 나단의 글, 갓의 글(대상 29:29), 잇도의 묵시책(대하 9:29),

1. 마틴 노트(M. Noth)는 역대기가 매우 잘 조직된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기 기록자 **the Chronicler** (단일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했다. Martin Noth, *The Chronicler's History* (JSOTSup 50; Sheffield: JSOT Press, 1987), 29-31. 오경비평을 하는 학자들은 여러 자료 Sources들이 후대에 역대기 사가의 개작 **post-Chronistic revision**을 통해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웰취 Welch 는 비제사장학학의 원자료를 제사장 신학을 가진이가 개작한 것이 현재의 역대기라고 주장하고, 갈링 Galling 은 비슷한 신학과 언어의 스타일을 가진 역대기 사가 A, 역대기 사가 B의 두개의 층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크로스 Cross는 세개의 층으로 구별해 내어서 원래의 자료를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에 개정 증보하였다고 주장한다. Sara Japhet, *I&II Chronicle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5-6. Ralph W. Klein, *1 Chronicles* (M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11-13.

2. Sara Japhet, *I&II Chronicles*, 5-6.

잇도의 족보책(대하 12:15), 잇도의 주석책(대하 13:22), 예후의 글(대하 20:34), 이사야(대하 26:22), 이사야의 묵시책(대하 32:32), 호새의 사기(대하 33:19). 마지막으로 역대기에는 다음과 같은 역사책들도 인용되었다: (1) 이스라엘 왕조실록(대상 9:1), (2) 다윗 왕의 역대지략(대상 27:24),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대하 29:30).³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역대기는 오경을 이루는 자료들, 그리고 비록 오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이스라엘의 기본신앙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창조적인 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나 성문서들과는 달리 과거의 자료들에 철저하게 의존하였다. 그렇다면, 열왕기로 충분히 보일 것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기록들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미 권위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책들에 의존하여서 마치 다시쓰기를 한 것과같은 역대기를 정경의 범주에 받아들인 이유는 무엇일까?

왜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프랑스의 신부였던 데오도레트 Theodoret 는 역대기와 열왕기를 비교하면서 서로의 내용이 어느 것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어느 것은 아예 기록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는 열왕기와 역대기 모두 저자가 어디에 중점을 두었는가에 따라서 자료들을 빼기도하고 덧붙이기도 하였다고 추론하였다. 그러므로 열왕기 사가가 빠뜨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모을 필요성에 의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고 정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다.⁴ 그러나, 이런 초보적인 설명은 역대기의 기록 필요성과 정경 안에 포함되어야만 했던 타당성을 전혀 설명해 주지 못한다. 데오도레트의 가정에 근거한다면 정경에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한 외경들 역시 정경의 범주에 모두 들어가야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대기가 정경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 당위성은 단순히 열왕기와 비교하기 보다는 구약의 정경이 틀을 갖춰가던 시기, 역대기 기자가 처한 삶의 정황을 살피면서 그 당위성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대기 기자가 처한 삶의 정황은 당시 정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책들에 기록된 하나님의

3. Sara Japhet, *I&II Chronicles*, 14-23. 더하여서 Klein은 역대기와 사무엘, 열왕기, 시편들을 서로 병렬시켜 놓고 구체적으로 어느 구절이 어느 구절과 서로 연관이 있는가를 긴 도표로 설명하였다. Klein, *IChronicles*, 30-37.

4.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 653.

백성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이었다. 그리고 역대기 이전에 기록된 규범들은 더 이상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없었다. 당대의 사회조직, 종교제의, 그리고 종교적인 의무들이 그 권위를 상실해 갔기 때문에 역대기는 이것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고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시대에 부합한 정경의 권위에 맞먹는 신학들을 재창조해야 했다.⁵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한 백성의 신학의 필요성 때문에

역대기 사가가 첨가한 내용들은 한결같이 다윗과 그의 업적,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치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참고. 대상 21:28-29:26). 포로기의 시대, 그리고 포로기 후기의 시대를 살아온 역대기 사가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이 야웨의 왕국이라는 것과 분열된 왕국의 분열된 백성은 하나님의 이상으로부터 먼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뉘어진 백성이 아니라, 한 백성이라는 역사의식을 필요로 하였다. 돌아온 가나안 땅에 남쪽과 북쪽 왕국의 백성들이 더이상 둘로 나뉘어 지지 않고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뿌리를 분열왕국이 아니라, 열두지파의 공동체에서 찾아내고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⁶ 그리고 그 열두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어울려 살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왕국의 시대로 묘사하며, 그 왕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한다.⁷ 그래서 열왕기와는 달리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의 상당부분을 첨가하였다.⁸

2. 이스라엘의 사회체계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포로기 이전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미 그곳에 거주하던 거주민들이 있었다. 다시 돌아온 공동체인든지 디아스포라 공동체인든지

5. Sara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New York: Eisenbrauns, 1989), 515-516.

6. Peter B. Dirksen, *1 Chronicle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5), 15-16.

7. Japhet, *I&II Chronicles*, 47.

8.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636-38.

간에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해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었다. 역대기는 열두지파 공동체를 강조하기는하나, 전통적인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나그네들 **גֵּרִים**을 포함한 공동체의 청사진을 그린다.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한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없애버리고, 모두를 이스라엘 **great Israel** 이라는 범주에 넣은 것이다. 이것은 역대기의 독특한 '땅'과 '사람들'의 신학이면서 역대기 사가의 시대를 반영한 역대기의 해법이였다.⁹

3. 예언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서 왕이 없는 시대에 예언자들에게 구심점을 모이려고

디아스포라에 사는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공동체 역시 자치권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왕을 세우고 독립적인 국가의 구실을 할 수 없었다. 이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중재자는 예언자들이였다. 왕이 없는 시대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였으며, 성전 제의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들이였다.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동시에 성전 제의를 만들어가고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였다. 이들에게 정당한 권리와 성서적인 배경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언자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밖에 없었다.¹⁰

4. 왕국 회복의 낙관적인 시각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 사가는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절대적인 정의의 하나님 상을 그리고 있다. 역대기의 대표적인 신학중의 하나는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벌을 준다는 것이 역대기의 뚜렷한 신학의 특징이다.¹¹ 이 신학은 마치 연좌제와 같이 조상들의 짐을 나누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스스로 세워갈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비록 포로기를 거쳐 이방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으나, 그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공동체의 미래는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¹²

9. Japhet, *I&II Chronicles*, 46-47.

10. Japhet, *I&II Chronicles*, 45-46.

11. Klein, *1Chronicles*, 46-47.

12. Japhet, *I&II Chronicles*, 5.

이러한 공동체의 요구와 필요성에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새시대에 부합하는 정경적 권위와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이와같은 역대기의 정경성은 역대기의 신학의 권위를 정경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참고문헌

Dirksen, Peter B. *1 Chronicles*.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5.

Japhet, Sara. *I&II Chronicles*.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Japhet, Sara.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New

York: Eisenbrauns, 1989.

Klein, Ralph W. *1 Chronicles*. Mermeneia-A Critical and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Bib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Noth, Martin. *Theh Chronicler's Histor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Supplement Series 50. Sheffield: JSOT Press, 1987.

김영진. 구약성서의 세계. 서울: 하늘기획, 2009.